아이디어 창출 및 발명의 발상기법

아라이의 통풍 장화

무슨 일이든 목표가 분명해야 성공할 수 있다. 발명도 마찬가지.

생선장수에서 발명가로 화려하게 변신한 일본인 아라이가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지독하게도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라이는 국민학교를 졸업하기가 무섭게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다.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그에게 좋은 직장이 있을리는 만무. 어쩔 수 없이 힘이 드는 생선가게에 취직을 해야만 했다. 그가 하는 일은 얼음 창고에 생선을 입출고 하는 것.

얼음창고는 섭씨 30도가 넘는 여름에도 두꺼운 방한복을 입고 장화를 신어야 추위를 이길 수 있었다.

그러나 추위는 문제가 아니었다. 문제는 장화였다.

얼음위를 걸을 때, 장화 안팎의 온도가 차이가 나서 장화 안에 습기가 생기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아라이는 무좀으로 큰 고생을 하고 있었다.

'장화 속에 습기가 생기지 않게 할 수는 없을까?'

아무리 끙끙 앓며 머리를 쥐어 짜도 묘안은 좀처럼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아라이는 생선가게 주인이 신고있는 그물망 가죽구두를 발견했다.

그물망 가죽구두는 통풍이 잘되어 땀이 나도 쉽게 말라 습기가 차지 않았다. 매우 편해 보였다.

순간 아라이 머리 속에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장화에도 구멍을 뚫면?'

아라이의 생각은 적중했다. 궁여지책으로 장화 바닥 위쪽 앞과 뒤에 작은 구멍을 뚫어 통풍이 되게해 보았더니 습기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실용신안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자마자 신발업체들이 찾아왔다.

장화는 물론 운동화에까지 채택되었다. 비가 오면 신을 수 없는 단점도 있었지만 1년중에 비오는 날이 며칠이나 되는가.

통풍 구멍 뚫린 장화와 운동화는 무섭게 팔려 나갔고, 아라이는 밑바닥 생선가게 심부름꾼에서 로열티를 받는 발명가로 떠올랐다.

요즘 마라토너들이 신고있는 신발의 통풍 구멍도 아라이의 발명에서 비롯된 것이다.

쓰쓰이의 변형 성냥갑

모양을 바꾸는 것도 발명이다. 산업재산권(특허권)은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등 4가지로 분류되는데, 여기서 모양은 의장에 해당한다.

모양을 바꾼 발명으로 떼돈을 번 사람도 많다. 일본사람인 쓰쓰이(筒井)도 그들중의 한 사람.

빌딩의 수위였던 쓰쓰이는 모양을 바꾼 성

"그물망 가죽구두는 통풍이 잘되어
땀이 나도 쉽게 습기가 차지 않았다.
매우 편해보였다.
순간 아라이 머리속에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장화에도 구멍을 뚫면?'"

냥갑으로 억만장자가 되었다.

30년전까지만해도 성냥갑이라면 장방형의 것과 삼각형의 것이 고작. 쓰쓰이는 여기에서 착안, 50여종의 성냥갑을 선보여 성냥박사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동경올림픽이 준비되고 있을 무렵, 일본 전역은 판촉물 개발의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값싼 물건으로 회사와 상품을 홍보하려는 기업들의 극성도 대단했다. 이름있는 기업들은 현상금까지 내걸고 아이디어를 모집하였고, 이에 편승하여 시민들도 아이디어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어린시절부터 아이디어맨으로 소문난 쓰쓰이도 예외가 아니었다.

'내 인생을 수위로 끝낼 수는 없지.'

쓰쓰이는 새로운 판촉물 개발에 운명을 걸기로 결심했다.

1주일에 3일만 근무하면 되므로 시간도 충분했다.

'판촉물이라면 값이 싸고, 모든 사람의 필수품이어야 하는데…'

끙끙 앓다가 담배 한대를 피우려는 순간 쓰쓰이는 무릎을 딱쳤다.

성냥을 발견한 것이다.

'그렇다. 성냥갑이다.'

이날부터 빳빳한 종이를 구해 성냥갑을 만들기 시작, 하루에도 4~5개의 각종 성냥갑을 만들었다.

영문을 모르는 동료들은 비웃기까지 했으나 쓰쓰이는 즐겁기만 했다.

이단형, 반달형, 맥주병형, 8각형, 원통형… 새로운 모양의 성냥갑이 만들어 질때마다 그의 희망도 그만큼 부풀어 올랐다.

1백여종의 성냥갑중 50여개를 골라 특허청에 의장출원도 마쳤다.

그중 맥주병형의 성냥갑이 쓰쓰이의 운명을 송두리채 바꿔놓았다. 일본 굴지의 맥주 회사가 올림픽을 겨냥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고 홍보용 판촉물로 채용해준 것.

이어 나머지 성냥갑들도 꾸준히 팔려나가 쓰쓰이는 로열티만도 연간 1천만엔을 넘어섰다.

뒤늦게 많은 기업이 성냥갑의 변형을 시도했으나 이미 쓰쓰이가 모두 의장출원을 마쳐버려 번번이 허사였다.

안타깝게도 최근 쓰쓰이의 동정은 알 수 없으나 그가 억만장자로 일본 어디에선가 행복한 여생을 보내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王〉

신 간 안 내

발명박사 1·2

규격 : 국판 240면
가격 : 각권 3,000원
판매 : 본회자료판매센터
(전화/(02)551-5571)